

# 배려, 함께 살아가는 힘



## 주제 개요

주제	배려
학습 목표	‘2미터 그리고 48시간’을 읽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차시별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전 점검하기(배경지식 활성화, 어휘 학습, 내용 예측하기) + 글 내용 확인하기1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 (1/3)</li> <li>- 글 내용 확인하기2(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2/3)</li> <li>- 나의 삶과 연계하기 + 찾아 읽기 (3/3)</li> <li>★자기 주도 학습하기</li> </ul>
제재 목록	유은실(2018), 2미터 그리고 48시간, 낮은산, pp.64-99.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p>[12실국04-01]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p> <p>[12실국04-02] 상대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p>
지도 시 유의점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미터 그리고 48시간’ 전문을 읽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지를 다양한 현실 사례를 탐색하고 활용 방안을 계획한다.</li> <li>• 학생들의 수준과 성향에 따라 개인별 학습과 모둠 학습이 모두 가능하다. 단, 모둠을 편성하여 진행할 경우, 모둠 학습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편성 및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li> <li>• 작품의 내용은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배려가 필요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문학 작품 속 사건을 통해 배려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단원으로, 작품을 읽으며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공감적으로 수용하며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li> <li>• 배려가 필요한 상황 중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탐색하여 작품 내용과 연계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 ● 단원 개관

- 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직무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단원은 상대의 감정을 잘 수용하는 공감적 소통 능력과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하기 위해 설정했다. 제재로 사용된 ‘2미터 그리고 48시간’은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여고생과 주변 인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상황을 그려 낸 소설이다.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하 ‘코로나19’로 약칭)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제목과 소재 면에서 흥미를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심리 변화, 그리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타인을 돕는 배려의 행동들을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배려의 힘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이 단원을 통해 ‘[12실국 04-01]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와 ‘[12실국04-02] 상대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라는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 읽기 전 점검하기

### 배경지식 활성화

- 우리 사회의 모습을 통해 배려하는 태도 떠올리기: 코로나19 시대

‘2미터 그리고 48시간’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고 48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타인이 피폭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소녀의 이야기이다. 작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도입 단계에서는 최근의 이슈인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의 모습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배려’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려 보도록 한다.

자료는 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카드에 질문과 관련 이미지 또는 텍스트 자료가 함께 담겨 있다. 한 모둠에 카드 세 장으로 이루어진 자료 세트를 배부하고, 모둠 학생들은 자료를 함께 돌려 본 후 각자 하나의 질문을 선택해 답을 한다. 이 과정에서 배려에 대한 자신과 친구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고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지 떠올려 보도록 하는 것이다.

### 활동 시 유의점

-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도록 안내한다.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일방적으로 특정 대상을 비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배려한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지도한다.
- 제시된 자료를 고르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이 없으며 서로의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러 명이 같은 자료를 중복하여 골라도 무방하다.

- ➡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난 사회의 여러 모습을 담은 자료를 제시한 후 관련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답하도록 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웠던 기간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자신이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③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4명 정도로 구성된 모둠에서 5분 내외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예시답안

- ①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웠던 기간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② 자신이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 ↳ 나도 누군가에게 옮았을 뿐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할 것이다. 완치가 되었는데도 혹시 모르니 조심스럽고 미안할 것이다. 확진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따돌림받는다면 정말 화가 날 것이다.
- ③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함께 잘 살기 위해서이다. 내게 남을 도움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 교사 설명의 예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방역 수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도우려는 마음, 즉 배려심에 연결되어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은 지극한 배려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는 배려심이 결여된 행동이다. 배려심 없는 행동은 우리를 슬프게, 억울하게, 심지어 화나게 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행동해야 한다.

### 교사용 TIP

교사가 의도한 반응 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며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감염된 것이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질타를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등의 과도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어겨 감염을 일으키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처벌과 질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모두 방역 수칙을 어겨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로를 뚜렷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2>를 통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완치자에게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하는 것과 확진자를 비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신공격과 비난, 혐오와 같은 행동은 정당한 응징이 아니며, 우리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도 없다. 이는 오히려 또 다른 가해이며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의 실현'이라는 가면을 쓴 혐오는 지양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활동의 핵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마저 이해해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의가 과도하게 다른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 어휘 학습


- ‘2미터 그리고 48시간’의 주인공 ‘정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음이 앓고 있는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전문을 읽는다면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장편 소설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읽고 활동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해당 질병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해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읽게 될 작품이 그레이브스병과 관련된 내용임을 짐작게 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으면 소량의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48시간 동안은 주변에도 방사능 피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다.
- 본 어휘 학습은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그레이브스병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무엇인지 미리 학습함으로써, 작품 속 상황에 좀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배경지식 활성화 활동에서 코로나19를 다루면서 거리 두기를 이야기했던 것을,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2미터 거리 두기와 관련지어 보라고 안내하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그레이브스병을 앓았던 유명인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갑상선 자가면역 항진증, 그레이브스병 / YTN 라이프 (2017. 8. 3.)

<https://www.youtube.com/watch?v=JQA1b60UWtc>

서유리의 그레이브스병 투병기 #1 / 서유리의 이름하야 유투브 (2020. 5. 5.)

<https://www.youtube.com/watch?v=2vDEISuE7s4>

 학생 활동지 [활동 1]에서 ‘2미터 그리고 48시간’을 읽을 때에 알아야 할 주요 용어를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1** ‘2미터 그리고 48시간’에 나오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보며 빈칸을 채워 보자.

그레이브스 병이란 갑상선 자가 면역 항진\*증으로,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갑상선 기능을 ( )시키는 질환이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땀 분비가 많아지며 대사량이 늘어나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 )돌출증이 생기기도 한다. 약물 치료나 ( ) 요오드 치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 항진(亢進): 기세나 기능 따위가 높아짐. 항진증은 신체 기관의 작용이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증상을 이름.

### 예시답안

그레이브스 병이란 갑상선 자가 면역 항진증으로,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갑상선 기능을 ( **항진** )시키는 질환이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땀 분비가 많아지며 대사량이 늘어나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 **안구** )돌출증이 생기기도 한다. 약물 치료나 ( **방사성** ) 요오드 치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 교사 설명의 예

그레이브스 병이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 대부분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발견되며 이러한 자가 면역성 요인이 그레이브스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목 앞부분에 위치한 갑상선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분비된 갑상선호르몬이 전신에 작용하여 대사량이 늘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눈이 돌출되어 매우 놀란 듯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방사선 피폭량은 비교적 적지만 이를 정도는 체내에 방사성 요오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내용 예측하기

- 작품의 제목과 표지를 보여 주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예측해 보도록 한다. 교사가 화면에 표지 사진을 띄우고 함께 보며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앞서 한 활동 내용을 참고로 다양한 상상력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예시답안

-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의 이야기이다.
- 그레이브스 병에 걸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이다.
- 그레이브스 병에 걸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아이의 이야기이다.

### 교사용 TIP

앞표지의 여자아이가 왜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꼭 숙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뒤표지의 여자아이가 모자 쓴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아이는 왜 줄자의 양끝을 잡고 있는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뒤표지에 작게 그려진 교복 입은 학생들은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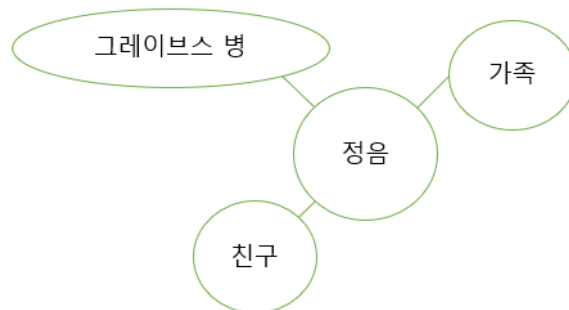
### ☞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하며 읽기

- ‘정음’이 처한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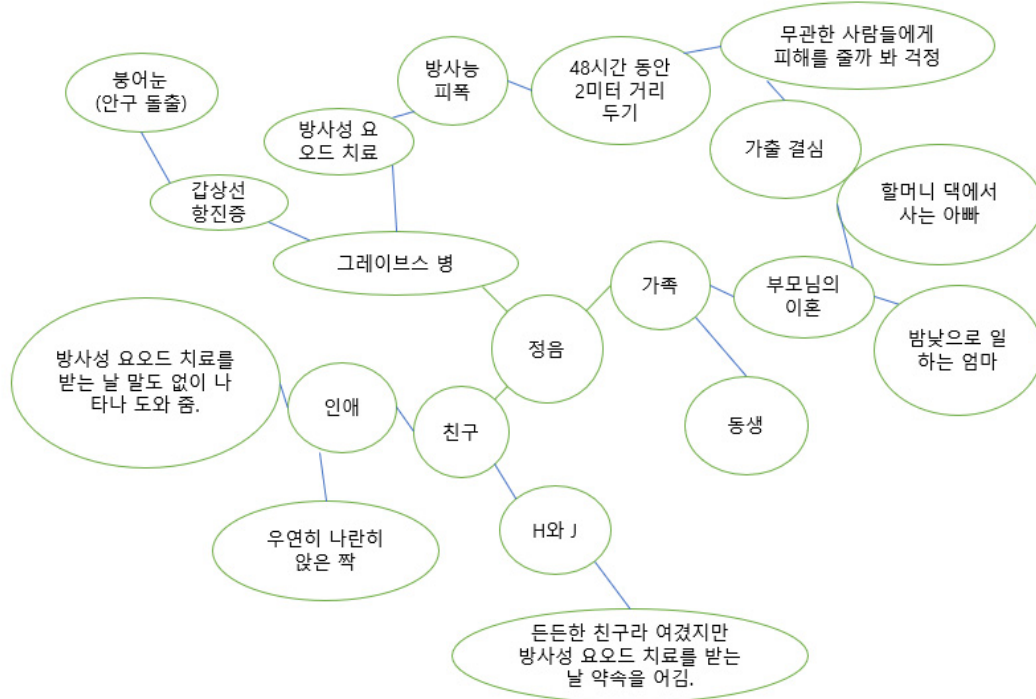
주인공인 정음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신체적 질환과 더불어 가족 관계, 교우 관계에도 불안정함을 느끼는 인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뜻밖의 배려를 받았을 때 변화하는 정음의 심리에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음이 처한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간단히 정리하며 읽도록 한다.

➡ ‘2미터 그리고 48시간’ 읽기 자료를 읽으며 학생 활동지 [활동2]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글을 읽으며 주요한 정보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추가하여 마인드맵을 완성한다.

**활동 2** ‘2미터 그리고 48시간’을 읽으며 정음이 처한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자.



## 예시답안



## 교사용 TIP

제시된 자료에는 정음의 가정사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 정음이 어린 나이에 홀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앞부분과 뒷부분 줄거리에 간략히 제시한 바를 토대로 교사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 주는 것도 좋다. 정음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곤란을 겪다 이혼을 했으며, 그 후로 정음의 엄마는 정음과 동생을 홀로 키우며 밤낮으로 교대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상태이다. 정음이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을 4년이나 앓으며 학교에서는 눈이 튀어나온 것으로 놀림받아 친구를 잃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에게도 몸과 마음의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 정음이 친구를 대할 때에 왜 그리 조심스럽고 솔직하지 못한지, 관리가 어려운 치료를 받으러 갈 때에도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유의점

- 제재와 관련된 추가 정보 제공하기: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요오드 제한식이란?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요오드 제한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도 작품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에 큰 무리는 없으나,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작품에 실려 있는 설명을 추가로 제공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떠올려 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한 설명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마취가 필요 없었다. 그냥 방사성 요오드와 물을 삼키는 것이다. 물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피를 타고 돌다가 갑상선에 저장된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통증 없이 갑상선을 파괴한다.

- 2미터 그리고 48시간(유은실), pp.33-34.

### ◎ 요오드 제한식에 대한 설명

이번 달은 생활비가 더 들었다. '요오드 제한식' 때문이다. 피폭 2주 전부터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몸에 남은 요오드를 최대한 없애야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천일염, 해산물……. 다 요오드가 들어 있었다.

- 2미터 그리고 48시간(유은실), p.37.

## 글 내용 확인하기

## ●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며 글을 읽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며 작품의 주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붙임쪽지를 활용한 의견 나누기 활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활동 2에서 정리한 마인드맵을 살펴보고 인물의 심리가 느껴진 부분을 떠올려 보고 읽기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찾는다. 붙임쪽지에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의 쪽수와 행을 기록하고 인물의 심리 상태를 풀어 쓴다.

개인별로 2~3장의 쪽지를 완성하여 모둠 활동지에 붙이고, 모둠원들은 쪽지를 돌려 가며 읽는다. 인물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자유롭게 해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인물의 상황이나 속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융합하며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의견을 나눈 후 인물의 배려심이 가장 잘 드러난 쪽지를 하나 골라 발표 칸에 붙이고, 발표자가 학급 전체에 내용을 발표한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교사는 이 단원의 주제인 '배려'의 가치를 도출하여 정리한다. 배려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배려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활동 3** '2미터 그리고 48시간'의 인물 심리 파악하기 (모둠 활동지)

1.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 상태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예시와 같이 쪽지로 만들어 주세요.

1) 개인별로 2~3장의 쪽지를 만듭니다.

2) 개인이 만든 쪽지를 모둠별로 돌려 보면서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예시) \*쪽 \*\*줄

\* 정음의 심리 : 친구들에게 섭섭하지만 그런 친구마저 잃을까 봐 마음을 숨김.

\* 그렇게 생각한 이유: H나 S가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별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씁쓸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단 친구인 척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숨기는 것 같다.

2.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의 쪽지를 모둠별로 하나 골라 붙여 주세요.

## 예시답안

1.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 상태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예시와 같이 쪽지로 만들어 주세요.

자료 \*쪽 \*\*줄

(나는 H에게 괜찮은 척했다. H뿐 아니라 집 밖에서 만나는 모두에게 '가벼운 병이 있지만 늘 잘 지내는 사람'을 연기하려 애쓴다. ~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

- 정음의 심리 :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부정적인 감정(우울감, 섭섭함 등)을 숨기는 것 같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중학교 때처럼 다시 혼자가 되기 싫어 잘 지내는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료 \*쪽 \*\*줄

(그게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나를 전염병 환자 보듯 할 것이다.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았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 정음의 심리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싫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정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염병 환자 보듯 피하고 배척한대도, 무고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견디기 쉽겠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큰 병을 앓고 있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음은 다른 사람에게 작은 피해라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료 \*쪽 \*\*줄

(S는 피폭 선물이라며 미용 도구를 가져와 앞머리를 정성스럽게 잘라 주었다. ... 그리고 어제 쉬는 시간, 둘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알려 왔다. ... 쓸쓸했다.)

- 정음의 심리 : 배신당한 기분이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어 괴로울 것이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함께 비를 맞는 우정'을 이야기하고 덕분에 두려움이 수그러들었다는 데에서 H와 S를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친구였기에 병원에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는 순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다.

자료 \*쪽 \*\*줄

(정우랑 엄마도 2주 동안 요오드 제한식을 했다. ~ 혼자 하면 외로우니 셋이 다 하자. 함께 비를 맞는 게 친구다.)

- 엄마의 심리 : 정음이 걱정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함께 비를 맞는 게 친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음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요오드 제한식을 함께 하려는 것 같다.

자료 \*쪽 \*\*줄

(나는 E에게 들켜 버린 게 싫었다. ~ 저만치 떨어진 그들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만 존재로 줄어든 것만 같았다. 쓸쓸하고 초라했다.)

- 정음의 심리 : 창피할 것이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정음은 자신이 믿어온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픈 것이다. 그런데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인에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 같아 창피할 것 같다.

자료 \*쪽 \*\*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받아 보는 건 처음이었다. ~ 나비 선글라스보다는 붕어눈이 나왔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처음 웃는 것 같았다.)

- 정음의 심리 : 얼떨떨하면서도 고맙고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는 건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입을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기도 하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정음은 얼떨떨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고개를 숙인 것 같다. 한 번도 받아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고마운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처음 웃었다는 데에서 정음이 인애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쪽 \*\*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게 싫었다. 별 위로도 되지 않았다. ... 나는 피폭 후 48시간이 가장 두려웠다. ... 막막하고 외로울 것 같았다.)

- 정음의 심리 : 두렵고 외롭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가까운 가족에게도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성격인 정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어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는 시간일 것이다. 혼자 되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정음에게 철저하게 혼자여야 하는 그 시간이 무척 막막하게 느껴질 것 같다.

2.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의 쪽지를 모둠별로 하나 골라 붙여 주세요.

자료 \*쪽 \*\*줄

(그래. 너 혼자 길에서 쓰러질까 봐 왔다니까. ~ 그때 식당에서 굶은 사람 혼자 병원 가는 거 무서워.)

- 인애의 심리 : 정음이 걱정되어 돕고 싶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그리 친하지 않더라도 아픈 친구가 혼자 치료를 받고 오는 것을 걱정하는 다정한 마음이 느껴진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돕겠다는 배려심을 가진 것 같다.

## 교사 설명의 예

소설을 읽을 때에는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설의 경우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배려란 상대를 위하여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익을 포기하면서 베푸는 선한 마음이다. 정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폭을 입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인애는 정음을 돕기 위해 보충 수업을 빠지고 병원에 와 주었다. 정음의 엄마는 요오드 제한식을 함께 먹으며 연대감을 주고자 했다. 인애의 배려는 엄마의 배려와는 달리 정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정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상황을 잘 알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여 생각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며 두려움과 외로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힘을 가진다.

### 교사용 TIP

- 학생들이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읽기 자료를 제작할 때 쪽수와 행 번호를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
- 학생들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활동을 어려워한다면 교사가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인물의 심리 상태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해 주기도 하지만, 인물의 표정이나 대사, 행동을 통해 추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음의 친구인 H와 S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정음은 안 그래도 혼자 가려고 했다며 덤덤한 척했지만 사실은 씁쓸하고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정음은 왜 약속을 어긴 친구들에게 화가 나기보다 씁쓸해했는지,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고 덤덤한 척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정음의 심리 상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의 심리 파악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물에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주인공인 ‘정음’의 심리만 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모둠에서 ‘정음’, ‘엄마’, ‘인애’의 심리를 하나 이상씩은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모둠 발표를 들으며 각 인물의 배려가 드러난 부분을 교사가 판서하여 정리한다. 각 인물의 배려심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 나의 삶과 연계하기

### ☞ 등장인물의 입장 되어 보기

- ➡ ‘2미터 그리고 8시간’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인물의 행동을 평가해 본다. 인물의 어떤 행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그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다른 인물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하고 싶은지 등을 고려하여 고민해 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같은 상황도 인물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단순히 좋은 인물, 나쁜 인물로 가를 수 없다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 우리 현실에서 하나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 작품은 정음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독자가 충분히 상상하고 이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태도를 연습해 보도록 한다.

### ☞ 활동 시 유의점

- 정음의 어머니나 친구 H와 J는 주인공인 정음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가가 부정적일 수 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물의 행동을 다각도로 평가해 보도록 지도한다.

**활동 4** 다음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만약 내가 그 인물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인물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인물의 행동을 평가해 보자.

정음, 인애, 정음의 엄마, 친구 H 또는 J		
내가 고른 인물	인물의 이름	
	인물의 행동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내가 해당 인물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 예시답안

내가 고른 인물	인물의 이름	정음의 엄마
	인물의 행동	정음을 돕기 위해 요오드 제한식을 함께 했다.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정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입장에서 해 주고 싶은 배려를 한 것 같다. 당연히 정음을 사랑하고 정음을 위해 함께 요오드 제한식을 하는 등 노력하지만, 그건 정음의 입장에서 바라는 배려는 아니었다. 정음이 그런 속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한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의 태도가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당 인물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정음의 엄마라면 하루쯤 휴가를 내고 정음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함께 가 줬을 것이다. 일이 바쁘고 쉴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그래도 미성년인 딸이 피폭을 당하는 치료를 받는 날이고, 치료 후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집까지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막막한 외로움이다. 정음에게 홀로서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정음이 정말 바라는 것을 들어 주고 싶다.
내가 고른 인물	인물의 이름	정음
	인물의 행동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후 사람들에게 피폭을 일으킬까 봐 2미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쓴다.
내가 해당 인물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2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폭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음 처럼 두려워하진 않을 것 같다. 피폭이 있대도 소량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진 않고, 병 때문에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매우 피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진 애를 쓰는 정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더 아프고 힘들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더운 여름날 땀박질을 하며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가는 정음의 행동에서는 양심과 배려심이 느껴진다.


## 교사 설명의 예

다양한 인물의 입장이 되어 각 인물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엄마를 선택했다면, 정음의 치료에 함께 가 줄 수 없었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음의 엄마가 무관심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컸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함께 가지 못한 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에도 공감하지만,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바쁜 엄마의 입장에서 최선의 배려를 한 건 아닐지 생각해 본다면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느끼는 심리를 깊이 생각해 보고 답하는 것이 좋다.

### 교사용 TIP

학생들이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기를 어려워한다면 모둠 토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같은 인물을 선택한 학생끼리 임시 모둠을 결성하여 모이도록 하고,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하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다. 모둠으로 옮기는 과정이 번거롭게 시간이 걸린다면 패들렛(앱)을 활용하여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 내가 겪은 배려는?

 학생 활동지 [활동 5]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배려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배려의 의미와 필요성, 영향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자신이 배려를 받거나 해 주었던 경험도 좋고, 배려를 받지 못했거나 해 주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쓰는 것도 좋다. 특별히 생각나는 일화가 없다면 제시된 자료에서 하나의 상황을 골라 떠오르는 생각을 쓰도록 한다.

**활동 5**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배려와 관련된 상황을 떠올려 일화와 느낀 점을 간단히 써 보자. 특별히 떠오르는 일화가 없다면 자료에서 하나의 상황을 골라 쓴다.

## 예시답안

- 눈이 많이 오던 날 할머니랑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눈을 쓸고 계셨다. 당연히 경비 아저씨나 관리 사무소 직원일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치는데, 할머니께서 아주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아니라 그냥 주민이셨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는 캠페인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실천할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의 배려 덕분에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다음에는 눈이 오면 놀기만 하지 말고 거리를 쓸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의를 베푸는 태도, 그것이 배려인 것 같다. 배려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어 세상을 따뜻하게 해 준다.
- 우리 윗집이 이사 온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그리고 쿵쿵대는 층간 소음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되어 간다. 피아노 소리, 발소리, 그리고 밤늦게까지 소리 지르며 노는 소리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편하기는커녕 스트레스가 쌓일 뿐이다.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우리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윗집의 태도이다. 공동 주택에

살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은 정말 배려 없는 행동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윗집 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워 보일 정도이다. 윗집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이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몰랐다. 배려 없는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아주 나쁘게 만든다.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사회성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과는 어떤 일도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아랫집을 위해 더욱 발소리를 조심하게 되었고 밤늦게 티브이를 볼 때에는 소리도 작게 줄여서 보게 되었다. 윗집 사람들도 하루 빨리 층간 소음의 심각성과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심해 주기를 바란다.

## 교사 설명의 예

각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배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필요한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배려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키거나 법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실되고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배려를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에 자기도 누군가를 배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확산되며 배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교사용 TIP

우리의 생활 곳곳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배려가 필요한 일들이 많다. 그런 만큼 배려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배려를 받은 적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고마웠던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배려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배려의 의미와 영향력을 스스로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배려와 관련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배려를 받았거나 주었던 경험, 또는 배려를 받지 못했거나 해 주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해 준다.

## 찾아 읽기

### 배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는 글 찾아 읽기

- ‘2미터 그리고 48시간’은 주변 인물의 배려를 받으며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보여 준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은 점점 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일만 잘 한다고 해서 좋은 사회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럿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협력하고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할 때가 많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학생이라면 특히 서로를 배려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이유와 배려하는 방법, 배려심을 키우기 위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작품을 찾아 읽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 ‘어디까지를 묻다(구병모)’<sup>38)</sup>, ‘인기 절정 영길이(최영희)’<sup>39)</sup>를 읽고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 배려를 실천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어디까지를 묻다’에서는 콜센터 직원의 하루를 통해 약자에 대한 갑질, 언어폭력의 원인을 배려와 관련지어 탐구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인기 절정 영길이’에서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나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통해, 배려의 시작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특별히 선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사 설명의 예

‘어디까지를 묻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 갑질 고객에게 언어폭력을 당하는 콜센터 직원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갑이 될 수도, 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갑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토록 무례해지는 것일까? 어쩌면 갑질이란 것은 을이었던 순간 당했던 수모를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화풀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낸 화를 받아 낸 을이 갑이 되는 순간, 화는 화를 더해 새로운 을에게 퍼부어지게 된다. 그 악순환에서 한 사람이라도 작품 속 점잖은 고객이 그랬듯 “괜찮아요?”라고 물어봐 준다면, 그런 작은 배려를 해 준다면 지독한 고리는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각박한 현대 사회에 배려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인기 절정 영길이’에서 영길이는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을 돕다 보니 자신이 없으면 어려워질 마을 사정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힘들어서 도망갔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배려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위한 마음의 기저에는 여러 시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 연민, 사랑, 존경 등 다양한 감정과 가치에서 시작되었으나,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배려가 더 가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개인주의자 선언(문유석)’<sup>40)</sup>을 읽고 글쓴이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자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배려의 선순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교사 설명의 예

‘개인주의자 선언’은 ‘개인주의’를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개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더욱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여럿이 타협하고 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다면 그 주변이 행복해질 것이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또 자신의 주변을 배려하다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협력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 또한 배려를 받는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38) 구병모(2019), 어디까지를 묻다(pp. 138-162), 김혜진 외(2019), 맘 흘리는 소설, 창비교육.

39) 최영희(2014), 인기 절정 영길이(pp.152-176), 최영희(2014), 첫키스는 엘프와, 푸른책들.

40) 문유석(2015),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 자기 주도 학습하기

### ☞ 혐오를 배려로 바꿀 수 있을까

- ‘2미터 그리고 48시간’을 통해 여러 사람의 배려가 한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배제의 문제를 배려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 학생들이 고민해 보도록 이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층, 패드립, 남성/여성 혐오 등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세대, 성별 구별 없이 퍼져 나가고 있는 혐오와 대립이 왜 생겨났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또 문화, 개인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이 좀 더 해당 내용에 몰입하고 사고를 확장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와 읽기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영상 자료: '인터넷 혐오표현' 범람...청소년 악영향<sup>41)</sup>

☞ ‘급식충’, ‘맘충’, ‘틀딱충’과 같은 혐오 표현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1** 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급식충’, ‘맘충’, ‘틀딱충’과 같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러한 표현을 듣는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하여 괄호 안을 채워 보자.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 ‘맘충’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엄마, ‘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모두 특정 계층을 ( )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을 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 )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청소년들 또한 본인이 ( )되는 말을 들을 때엔 벌레로 취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 예시답안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 ‘맘충’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엄마, ‘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모두 특정 계층을 ( **짜아내리** )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을 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 **우울** )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청소년들 또한 본인이 ( **비하** )되는 말을 들을 때엔 벌레로 취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41) 국민리포트(2018.03.20.), ‘인터넷 혐오표현’ 범람...청소년 악영향, KTV국민방송.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1182](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51182)

## 교사 설명의 예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 ‘맘충’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거나 아이를 내세워 지나친 혜택을 얻으려는 엄마, ‘뜰딱충’은 뜰니를 딱딱거리며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노인을 가리키는 혐오 표현이다. 이 외에도 진지충, 설명충, 한남충 등 벌레 충(蟲) 자를 붙여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청소년들 또한 본인이 비하되는 표현을 들을 때에는 벌레로 취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만큼, 혐오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혐오 표현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기사문: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sup>42)</sup>

**자기주도 학습하기 1**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혐오 표현이 확산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자.

### ◎ 혐오 표현의 확산 문제

이유	과도한 경쟁과 실업, 저임금 등의 ( )한 현실 탓에 불안해진 현대인들은 상대를 먼저 ( )하고 이해할 여유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공공 예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각박해졌기에 ( ) 표현이 쏟아지는 것이다.
해결 방법	사회적 ( )을 해소할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공공 예절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서로를 (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예시답안

### ◎ 혐오 표현의 확산 문제

이유	과도한 경쟁과 실업, 저임금 등의 ( <b>각박</b> )한 현실 탓에 불안해진 현대인들은 상대를 먼저 ( <b>배려</b> )하고 이해할 여유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공공 예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각박해졌기에 ( <b>혐오</b> ) 표현이 쏟아지는 것이다.
해결 방법	사회적 ( <b>불안</b> )을 해소할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공공 예절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서로를 ( <b>이해</b>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사의 분량이 많아 학습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부분만 발췌하여 실었다. 기사의 전문을 읽고 혐오 사회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읽기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다.

42) 김태훈(2015.08.22.),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2145542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21455421)

## ● 활동 자료

### ◎ 배경지식 활성화 자료

〈자료1〉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웠던 기간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주도방역<sup>43)</sup>



"기억에 남을 모습"...마스크 쓴 '우승자' 김아림 향한 외신들의 찬사<sup>44)</sup>



US여자오픈 최종라운드 김아림의 모습. 김아림은 이번 대회 4라운드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AP=연합뉴스]

"일부 선수들에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거슬리게 느껴졌겠지만, 김아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책을 실행했다. 스코어 카드에 서명을 하고, 혼자 텐트(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아림은 이에 대해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은데,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마스크를 쓰는 게) 최선이겠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것은 감수하고 했다"라고 말했다.

- "기억에 남을 모습"... 마스크 쓴 '우승자' 김아림 향한 외신들의 찬사(김지한)

43) 자기주도방역(2020.09.13.), 우정사업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post.kr/posts/3209792185736916>

44) 김지한(2020.12.15.), "기억에 남을 모습"...마스크 쓴 '우승자' 김아림 향한 외신들의 찬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45980>

〈자료2〉 자신이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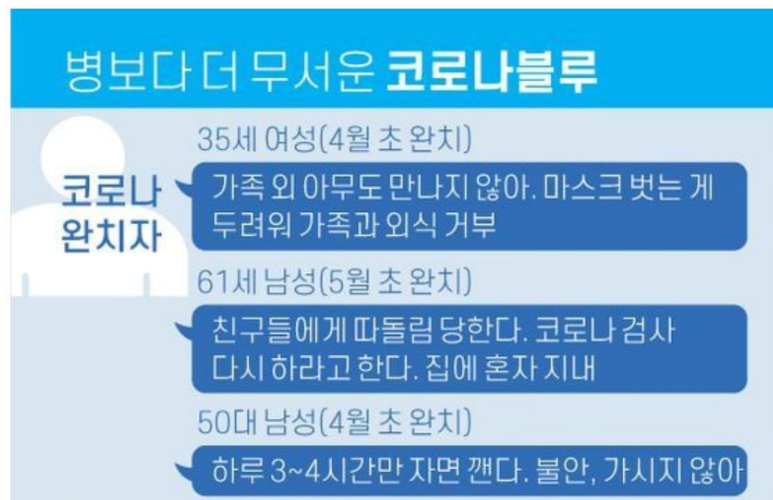
① 확진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왕따’에 운다<sup>45)</sup>

갈등 부메랑 된 ‘전염병 따돌림’

강원 원주의 한 체조 교실에서 무증상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B군의 아버지 C씨는 온라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아이가 근거도 없이 슈퍼 전파자로 공격받는 현실을 부모로서 보고만 있기 정말 힘들다”라고 했다. “아이가 운동했던 체조 교실에는 이미 감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있었다. 아이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 자마자 남들보다 일찍 검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해도 ‘어디서 감염된 건지 공개하라’는 성토만 쏟아지고 있다.

- 확진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왕따’에 운다(명희진)

② “넌 확진자” 얼굴 알려질까 외식도 못 해...35세 완치자의 고통<sup>46)</sup>



한 대학병원이 10명의 완치자를 조사했더니 8명이 일시적 불안·우울·불면을 호소했다. 주변의 낙인, 주변을 감염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넌 확진자” 얼굴 알려질까 외식도 못해...35세 완치자의 고통(신성식)

③ “혹시 나 때문에?”...울산 학생 확진자들 심리적 고통 호소<sup>47)</sup>

“제가 감염시킨걸까요? 혹시 따돌림당하면 어떡하죠?”

한 학생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혹시 자신 때문에 학교가 폐쇄될 것을 걱정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만약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친구들에게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커 집중 상담을 받기도 했다.

-“혹시 나 때문에?”...울산 학생 확진자들 심리적 고통 호소(구미현)

45) 명희진(2020.08.25.), 확진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왕따’에 운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6010012>

46) 신성식(2020.07.15.), “넌 확진자” 얼굴 알려질까 외식도 못해...35세 완치자의 고통,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856>

47) 구미현(2020.12.12.), “혹시 나 때문에?”...울산 학생 확진자들 심리적 고통 호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2\\_0001267523](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2_0001267523)



〈자료3〉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독거 어르신 지킴이 봉사 이귀임 씨<sup>48)</sup>



밑반찬 만들어 독거 어르신 댁 찾아가는 봉사활동 이어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자들 보호를 위해 성당이 폐쇄되었고 감염 위험의 예방책으로 반찬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소외 계층 댁을 방문해 보니 컵라면, 반찬 없는 맨밥, 빵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려서 밤잠 설치며 고민이 컸습니다.”

—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독거어르신 지킴이 봉사 이귀임 씨(정지순)

◎ 내용 예측하기 자료 (책 표지 이미지<sup>49)</sup>)



48) 정지순(2020.05.22.),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독거어르신 지킴이 봉사 이귀임 씨, 시니어매일.

<http://www.seniorma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3>

49) 알라딘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편집함.

<https://www.aladin.co.kr/shop/book/wletslookViewer.aspx?ItemId=167543426>

## 학생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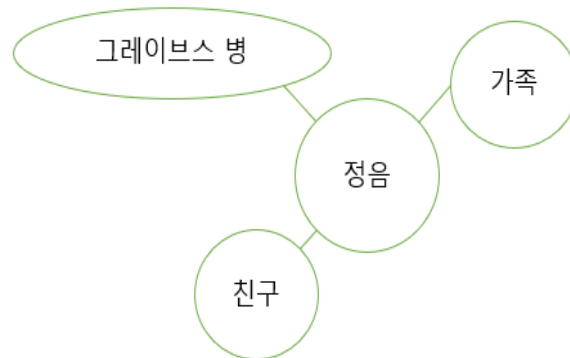
### 제목 배려, 함께 살아가는 힘.

**활동 1** '2미터 그리고 48시간'에 나오는 주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보며 빈칸을 채워 보자.

그레이브스 병이란 갑상선 자가면역 항진증으로,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갑상선 기능을 ( )시키는 질환이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땀 분비가 많아지며 대사량이 늘어나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 )돌출증이 생기기도 한다. 약물 치료나 ( ) 요오드 치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 항진(亢進): 기세나 기능 따위가 높아짐. 항진증은 신체 기관의 작용이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증상을 이룸.

**활동 2** '2미터 그리고 48시간'을 읽으며 정음이 처한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자.



**활동 3** '2미터 그리고 48시간'의 인물 심리 파악하기 (모둠 활동지)

1.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 상태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예시와 같이 쪽지로 만들어 주세요.

1) 개인별로 2~3장의 쪽지를 만듭니다.

2) 개인이 만든 쪽지를 모둠별로 돌려 보면서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예시) \*쪽 \*\*줄

\* 정음의 심리 : 친구들에게 섭섭하지만 그런 친구마저 잃을까 봐 마음을 숨김.

\* 그렇게 생각한 이유: H나 S가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별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씁쓸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단 친구인 척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숨기는 것 같다.

2.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의 쪽지를 모둠별로 하나 골라 붙여 주세요.



**활동 4** 다음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만약 내가 그 인물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인물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인물의 행동을 평가해 보자.

정음, 인애, 정음의 엄마, 친구 H 또는 J

내가 고른 인물	인물의 이름	
	인물의 행동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내가 해당 인물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활동 5**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배려와 관련된 상황을 떠올려 일화와 느낀 점을 간단히 써 보자. 특별히 떠오르는 일화가 없다면 자료에서 하나의 상황을 골라 쓴다.

<자료>

- ① "택배 기사님, 감사해요!" 잇단 과로사가 불러온 따뜻한 유행 50)



②

- (1) 최근 온라인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팩트폭력'이란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팩트폭력은 '상대방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팩트(사실)를 나열해 상대방의 민감한 부분을 지적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팩트폭력'. 팩트인가 폭력인가(박광연)<sup>51)</sup>



- (2) 법관들도 말에 주의하고 반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 그때 배운 것이 있다. 데이의 「세 황금문」이다. 누구나 말하기 전에 세 문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친절할 말인가?' 흔히들 첫 번째 질문만 생각한다. ... 진심이 담긴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배려심 없이 내뱉으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 개인주의자 선언(문유석), p.136.<sup>52)</sup>

50) 윤한슬(2020.10.27), "택배기사님, 감사해요!" 잇단 과로사가 불러온 따뜻한 유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710360003574>

51) 박광연(2016.09.18), '팩트폭력'. 팩트인가, 폭력인가,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9181537001#csidxab50b1dcf2f82a0a9e8de25bda4c4c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9181537001#csidxab50b1dcf2f82a0a9e8de25bda4c4c6)

52) 문유석(2015),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p.136.

## 학생 활동지



### 제목

배려, 함께 살아가는 힘.

**자기주도 학습하기 1** 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급식충’, ‘맘충’, ‘틀딱충’과 같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러한 표현을 듣는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하여 괄호 안을 채워 보자.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 ‘맘충’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엄마, ‘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모두 특정 계층을 ( )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을 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 )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청소년들 또한 본인이 ( )되는 말을 들을 때엔 벌레로 취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자기주도 학습하기 2**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혐오 표현이 확산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자.

‘노인충’ ‘맘충’ ‘급식충’ ‘자전거충’을 아십니까?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벌레’로 낮추어 부르는 혐오의 표현이다. 갈수록 한국 사회는 상대방에 대한 멸시의 태도가 높아가고 있다. 자기만 생각하는 민폐도 문제지만, 남을 배려 않는 혐오도 문제다. (중략)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충’에 으레 따라붙는 표현이 ‘극혐’이다. 말 그대로 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이다. 자리 타박하는 노인이나 자기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애 엄마를 보고 그저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골적으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세태가 담겨 있다. ‘~충’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충’이 되고 만다. 나이가 어려 다소 유치한 언사나 행동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는 점 때문에 ‘급식충’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유머 게시글을 이해 못하고 진지한 댓글을 달기라도 하면 ‘진지충’으로 몰린다. 이들 역시 ‘극혐’의 대상인 점은 같다. (중략)

특히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과 과도한 경쟁, 저임금 등의 경제적 문제는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트워크상에서 냉소와 혐오가 교차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게 만든 요인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정치권의 무능, 경제적인 불안을 마주하면서 생긴 불만을 여러 방향으로 표출하는 한편,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는 잃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사태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운 요인들이 한둘이 아닌 탓에 남을 대하는 시선 역시 삭막해진 것이다.

김 교수는 “실제로 ‘~충’이라고 부를 만한 몰상식한 사건들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들을 ‘~충’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연하게 늘어난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각박한 현실 탓에 공감과 신뢰를 잃어가는 분위기는 혐오가 더욱 번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할 정서적 여유가 사라진 탓에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노인충’, ‘맘충’으로 불릴 법한 공공 예절 무시 행위가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더욱 각박해진 상태여서 보다 강한 혐오가 담긴 비난이 쏟아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까지 갖춰지면 어느 한 시민의 무개념 행위가 SNS를 통해 폭발적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중략)

여러 ‘~충’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점은 갈 곳 잃은 혐오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던져 주기도 한다. ‘노인충’과 ‘맘충’을 포함해 4륜 차량 중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자전거충’, 어린 청소년을 가리키는 ‘급식충’ 등이 나타난 것은 노인과 보육 중인 여성, 자전거 이용자,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이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공 예절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김찬호 교수는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양은 늘었다지만 실생활에서의 원활한 소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한 원인”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갑질이 난무하고 과도한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점차 해결해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호기 교수는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도록 신뢰와 연대가 힘을 얻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우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안과 불만을 해결할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략)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김태훈)<sup>53)</sup>

53) 김태훈(2015.08.22.),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2145542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21455421)

## 학생 활동지



### 제목 배려, 함께 살아가는 힘.

**자기주도 학습하기 1** 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급식충’, ‘맘충’, ‘틀딱충’과 같은 혐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러한 표현을 듣는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하여 괄호 안을 채워 보자.

‘급식충’은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 ‘맘충’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는 엄마, ‘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모두 특정 계층을 ( )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을 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 )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혐오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청소년들 또한 본인이 ( )되는 말을 들을 때엔 벌레로 취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 자기주도 학습하기 2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혐오 표현이 확산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자.

‘노인충’ ‘맘충’ ‘급식충’ ‘자전거충’을 아십니까?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벌레’로 낮추어 부르는 혐오의 표현이다. 갈수록 한국 사회는 상대방에 대한 멸시의 태도가 높아가고 있다. 자기만 생각하는 민폐도 문제지만, 남을 배려 않는 혐오도 문제다. (중략)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충’에 으레 따라붙는 표현이 ‘극혐’이다. 말 그대로 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이다. 자리 타박하는 노인이나 자기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애 엄마를 보고 그저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세태가 담겨 있다. ‘~충’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충’이 되고 만다. 나이가 어려 다소 유치한 언사나 행동을 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는 점 때문에 ‘급식충’이라는 호칭이 붙는다. 유머 게시글을 이해 못하고 진지한 댓글을 달기라도 하면 ‘진지충’으로 몰린다. 이들 역시 ‘극혐’의 대상인 점은 같다. (중략)

특히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과 과도한 경쟁, 저임금 등의 경제적 문제는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트워크상에서 냉소와 혐오가 교차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게 만든 요인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정치권의 무능, 경제적인 불안을 마주하면서 생긴 불만을 여러 방향으로 표출하는 한편,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는 잃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사태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운 요인들이 한둘이 아닌 탓에 남을 대하는 시선 역시 삭막해진 것이다.

김 교수는 “실제로 ‘~충’이라고 부를 만한 몰상식한 사건들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들을 ‘~충’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연하게 늘어난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각박한 현실 탓에 공감과 신뢰를 잃어가는 분위기는 혐오가 더욱 번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할 정서적 여유가 사라진 탓에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노인충’, ‘맘충’으로 불릴 법한 공공 예절 무시 행위가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더욱 각박해진 상태여서 보다 강한 혐오가 담긴 비난이 쏟아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까지 갖춰지면 어느 한 시민의 무개념 행위가 SNS를 통해 폭발적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중략)

여러 ‘~충’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점은 갈 곳 잃은 혐오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던져 주기도 한다. ‘노인충’과 ‘맘충’을 포함해 4륜 차량 중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자전거충’, 어린 청소년을 가리키는 ‘급식충’ 등이 나타난 것은 노인과 보육 중인 여성, 자전거 이용자,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이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공 예절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김찬호 교수는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양은 늘었다지만 실생활에서의 원활한 소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한 원인”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갑질이 난무하고 과도한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점차 해결해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호기 교수는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도록 신뢰와 연대가 힘을 얻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우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안과 불만을 해결할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략)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김태훈)<sup>54)</sup>

### ◎ 혐오 표현의 확산 문제

이유	과도한 경쟁과 실업, 저임금 등의 ( )한 현실 탓에 불안해진 현대인들은 상대를 먼저 ( )하고 이해할 여유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공공 예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각박해졌기에 ( ) 표현이 쏟아지는 것이다.
해결 방법	사회적 ( )을 해소할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공공 예절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서로를 (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4) 김태훈(2015.08.22.),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2145542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221455421)

읽기자료



## 2미터 그리고 48시간

### [앞부분 줄거리]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받은 ‘정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으며 눈이 튀어나오게 되고 놀림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4년간의 약물치료에도 병이 호전되지 않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기로 한다. 아 빠는 사업 실패 후 이혼해서 나가고, 공장에서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엄마는 바빠서 정음의 치료마저 함께 다니 지 못한다.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한 후 48시간 동안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격리해야 타인의 방사능 피폭을 막을 수 있기에, 정음은 가족을 피하기 위해 48시간의 가출을 계획하고 병원으로 향한다.

나는 핸드폰을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다. 20분쯤 걸어서 병원 본관 지하 1층 핵의학과에 도착했다. 갈증은 점점 심해졌다. 피폭에 대한 두려움보다 방사성 요오드와 함께 마실 수 있는 물 200시시가 간절해졌다.

폭이 넓은 책상 위에 핵의학과 직원이 종이컵 두 개를 올려놓았다. 컵 하나에 캡슐이, 다른 하나에 물이 담겨 있 었다. 캡슐에 몇 밀리퀴리의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 있다고 직원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서둘러 캡슐을 삼켰다. 그러고는 물을 마셨다. 살 것 같았다.

‘그레이브스 씨, 안녕’

언제부턴가 그레이브스 씨가 남자 어른 악당 같지가 않았다. 나에게 기대어 사는, 힘없는 할머니를 떠올릴 때가 많았다. 그녀가 편안히 떠나기를 바랐다.

“저, 피폭된 건가요?”

캡슐을 건넌 직원에게 물었다.

“네, 소량이지만.”

그가 대답했다.

“물 200시시 다 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가 종이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물을 마시며 시시, 시간, 밀리퀴리 같은 단위를 생각했다. 200시시는 우유 한 팩, 두 시간은 오늘 아침 우리 집 현관에서 출발해 방사성 요오드 캡슐을 삼킬 때까지 보낸 시간이었다. 하지만 ‘mCi’라고 쓰고 ‘밀리퀴리’라고 읽는 단위는 감이 잡히지 않았다.

‘밀리퀴리? 혹시 조느라고 못 들었을까?’

나는 과포자에 가깝지만, 그래도 단위 정도는 알고 있었다.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 이름도. 밀리퀴리는 과학 시간에 들어 본 적이 없는 단위였다. 내가 삼킨 방사성 물질이 아무래도 캡슐만큼이 아닐 것 같았다. 방사성 폐 기물을 콘크리트로 감싸듯, 캡슐 깊숙한 곳에 좁쌀만큼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켰을지 모를 작은 생명을 떠올리는 건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차라리 입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납으로 둘러싼 차폐 병동에 갇혀 있을 수만 있다면, 모두와 2미터를 벌려야 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수행하느라 지치지 않았을 것이다. 아픈 몸으로 산 4년을 돌이켜 보며 슬퍼하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생길지 모르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데 집중했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입원은 저 건너편 환자들의 세계로 넘어가 일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느껴졌다.

창 너머로 암 병동과 연결되는 통로가 보였다. 스님처럼 머리를 민, 어떤 아주머니가 수액이 달린 긴 걸이를 밀고 천천히 지나갔다. 지난 4년, 병원을 오가며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났다. 뺨뺨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은 환자와도 적잖이 마주쳤다. 그들을 보면 선우가 떠오르곤 했다. 병원은 어쩌면 그들이 모자를 쓰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특별 보호 구역’ 같은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 이쪽에 앉아. 병원 카페 가봤자 시끄러워. 면회 시간까지 여기 있자고.”

60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 어른 둘이 김치찌개 냄새를 풍기며 내 쪽으로 왔다. 체구나 생김새가 비슷한 게 친형제 같았다. 그들은 내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외국인들이 왜 한국 사람에게서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김치를 2주 동안 못 먹으니, 사람한테 김치 냄새가 났다. 심지어 샤워탕 양치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엄마에게서도.

‘나한테서 방사성 요오드 냄새가 날까?’

나는 팔뚝을 코에 댔다. 그냥 내 살내였다. 나는 김치찌개에 폐, 위장, 대장, 그리고 뇌까지 점령당했다. 돼지고기와 두부가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치찌개에서 벗어나 보려고 ‘48시간 뒤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라면과 김치, 튀김 만두와 떡볶이, 해물 짜장과 탕수육, 치킨과 콜라…….

“휴우.”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김치찌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다. 못 먹는 괴로움이 늘었다.

“봄이나 가을에 죽고 싶다고 하시더니, 이 땡벌에 상 치르게 생겼네.”

남자 어른 하나가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말했다.

‘중환자실에 누가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

환자가 오래 아프면, 나이가 많으면, 이빨을 쑤시면서 태연한 얼굴로 죽음을 말할 수 있는가 보았다. 그 태연한 죽음 이야기 덕분에 김치찌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닥친 막막한 상황이 떠올랐다.

‘이제 어떻게 가지?’

최선의 이동 수단은 기사와 2미터 이상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콜밴이다. 콜밴을 호출한 다음 병원 입구까지 빨리 달려서, 지나치는 사람의 피폭 시간을 줄인 다음에 바로 맨 뒷자리에 올라타면 되는 것이다.

콜밴 기본요금은 2만5천 원이다. 할머니 집까지 4만 원 정도에 갈 수 있다는 건 미리 검색해서 알고 있었다. 문제는 기사의 궁금증이였다. 미성년자인 나 혼자, 큰 짐도 없이, 병원으로 부른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제 몸에서 방사성 물질일 나와서 성인 남성과도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일반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다.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승차 거부를 당할 수도 있었다. 몇 가지 거짓말이 떠올랐다.

“밴을 꼭 한번 타 보고 싶었어요.”

“기사님, 저는 콜벤 운전사가 꿈인데요, 진로 체험하려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여섯 명이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저 혼자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허술했다. 혹시 기사가 속아 준 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대중교통으로 병원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방법을 검색했다. 한산한 버스에서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갈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C대 입구 정류장에서 시청 반대 방향으로 154번 버스를 타면, 마을버스로 한 번 환승해서 할머니 집 근처까지 갈 수 있었다.

**끝났어? 괜찮아?**

H의 카톡이었다. H와 S,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단톡방이었다. H와 S는 고등학교에 와서 함께 다니는 애들이 다. H는 보충수업 중이었다. 쉬는 시간인 것 같았다. S는 집에 있을 것이다. S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다. 미용 학원에 다닌다.

영^^ 끝났어

방사성 요오드 맛있어서 더 달라고 안 했어

나는 H에게 괜찮은 척했다. H뿐 아니라 집 밖에서 만나는 모두에게 ‘가벼운 병이 있지만 늘 잘 지내는 사람’을 연기하려 애쓴다. 연기하는 게 힘들 때도 있다. 그렇다고 무대에서 내려올 자신도 없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이 빠져나가듯,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모두 멀어질 것만 같다.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

웃기는 거 보니 괜찮나 보네

지금 어디?

S가 물었다.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

면회 시간 아니라 한산한 편

카톡을 하며 나는 살짝 들떴다. 2미터 경계 안으로 H와 S가 훌쩍 들어온 느낌이었다. 덜 외로웠다.

너 혼자?

아니 앞자리 사람이랑 아슬아슬 2미터

임산부 아니겠지?

몇 살쯤 됐는데?

60대 남자

ㅋㅋㅋㅋ

“어, 누나 이리 와.”

앞자리에 앉은 형제 중 하나가 어떤 할머니에게 손짓했다. 할머니가 다가와 내 앞에 앉았다. 할머니와 나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다.

60대 남자 누나분 오심

2미터 이내 일어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땀다.

헐 너는 착해서 안 낫는다니까

치료받고도 남한테 피해 줄까 봐 걱정

더 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 앞을 떠났다. 그만 말하고 싶기도 했다. 어제 오전까지 H와 S는 나에게 기호가 아니었다. 헤빈과 수민이라는 친구였다.

둘과 친구가 된 후, 병원에 혼자 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둘 혹은 셋이 피 검사나 진료를 마치고 둘 혹은 셋이 C대 학생회관으로 가곤 했다. 구내식당에서 쫄면을 사 먹었다. 매점에서 학교 마크가 박힌 노트나 필기구를 샀다. C대에 다니는 학생이 된 것처럼 들렸다. H는 본관 앞 화단에 몰래 침을 뱉었다.

- 침으로 찼했어. 나 이 학교 경영학과 들어갈 거야.

H가 말했다. S와 나는 웃었다. S도 침을 뱉었다.

- 이 학교 애들이 내가 개발한 헤어스타일 화보를 보게 만들어야지.

S가 말했다. 둘이 나를 봤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성적은 겨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정도였다. C대는 H처럼 수능 모의고사 2등급 이상이 되는 애들이나 꿈꿀 수 있는 학교였다. 나에겐 S같은 꿈도 없었다.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에서 내가 꿈꿀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나아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 것 정도였다.

H와 S는 피폭이 결정된 날도 나와 함께 병원에 왔다. 피폭되는 날 나의 좌우에서 2미터씩 떨어져 걸으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폭 장소와 시간을 각자의 스케줄 앱에 입력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우리 반 내 자리로 찾아와서 피폭 2시간 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 올 당번을 정하기도 했다. 얼음물은 H, 수박을 잘라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 오는 건 S가 맡았다.

- 나랑 손 닿으면 안 되니까, 작은 통 세 개에 나눠 담아 와. 정말 고맙다.

- 고맙다는 말 그만해.

- 어려울 때 함께해야 친구지.

나는 둘의 우정에 감동했다.

- 이정음, 편질나게 찾아오는 개네들…….

짜 E가 불쑥 말을 꺼냈다. E는 틈만 나면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을 읽는 애였다. 소설에 빠져서 컵물 닦는 걸 잊다가 교복 치마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우리 반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유일한 인간 E.

- 아, 떠들어서 방해됐지. 미안.

- 방해된 건 별로 없고, 너 정말 개들이랑 병원 가니?

- 어. 왜?

- 난 개들이랑 가는 거 별로.

E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나는 좀 불쾌했다. E는 그냥 짝이었다. 내가 누구랑 병원에 가든지 상관할 사이는 아닌 듯했다.

S는 피폭 선물이라며 미용 도구를 가져와 앞머리를 정성스럽게 잘라 주었다.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와 정우에게 함께 비를 맞는 우정을 얘기했다. 피폭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어제 쉬는 시간, 둘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알려 왔다. H는 보충수업에 빠질 수 없고 S는 미용 학원 특강 때문이라고 했다. 씁쓸했다. 보충수업은 생활기록부 출결 상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H네 답임은 평소에도 보충수업을 잘 빼 줬다. 말만 하면 빠질 수 있는 게 방학 보충이었다. 미용 학원 특강도 아침 일찍 있을 것 같지 않았다. S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방학 때도 야간반으로 학원에 다니는 애였다. 나와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학원을 빠진 것도 여러 번이었다.

- 응, 안 그래도 혼자 가려고 했어. 너희들 피폭시킬까 봐.

나는 애써 덤덤하게 말했다.

‘재들 엄마가 말렸을까?’

‘누가 먼저 가지 말자고 했을까?’

‘2미터 넘게 떨어져도 위험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

- 재네 완전 헐이다.

둘이 돌아간 뒤, 짝 E가 말했다.

- 너 책 보는 거 아니었어?

내가 물었다. E가 보던 책을 덮었다.

- 재네랑 놀지 마.

E는 오른손을 머리 가까이 대고 빙빙 돌리며, H와 S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시를 했다.

나는 E에게 들켜 버린 게 싫었다. E가 틀렸다. H와 S는 제정신이였다. 인파에서 나와 잠깐이라도 2미터를 벌리지 못할 수 있었다. 수박을 담은 통을 주고받다가, 열린 생수병을 전해 주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H와 S가 내 마음 한가운데서 2미터 밖으로 물러나 버렸다. 저만치 떨어진 그들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만 존재로 줄어든 것만 같았다. 쓸쓸하고 초라했다. 그래도 둘 앞에서 나는 친구를 연기할 것이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나를 테니까.

중환자실 앞을 벗어나자마자 사람들과 거리를 벌리기 어려워졌다. 내 몸 상태에 무지한 이들은 경계심 없이 반경 2미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해를 덜 끼치려고 달렸다. 숨이 찰 땀 뺀 뒤사람과 2미터를 벌리지 않아도 되는 벽이나 기둥에 기대서 쉬었다. 무기를 들고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나의 동선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내 반경 2미터에 붉은색 레이저 빔이 표시되고, ‘접근 금지, 붉은 선 안으로 들어오면 피폭될 수 있음.’하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상상을 했다. 그게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나를 전염병 환자 보듯 할 것이다. 그래도 그게 나를 것 같았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본관 회전문 앞에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나도 모르게 셔틀버스를 타는 쪽으로 움직였다. 근처 지하철역까지 무료로 데려다주는 버스였다. 나는 चु춤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멈칫했다. 2미터는 커녕 20센티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채 셔틀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를 자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을, 나는 이토록 타인과 가깝게 보냈던 것이다.

장례식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례식장 옆에서 대학 본관 쪽으로 가는 오솔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H나 S와 이 길을 따라 대학 본관으로 넘어가곤 했다. 오솔길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2미터

반경 안에 있는 건 나무와 풀, 그리고 그 사이에 갇든 새와 벌레뿐이었다. 안내문에 동물도 피폭될 수 있으니 멀리하라는 말은 없었다.

‘왜 동물과 거리를 벌리라는 말은 없지? 갇 태어난 강아지는 아기보다 작잖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본, 후쿠시마에 버려진 동물들이 떠올랐다. 나는 새와 벌레가 피폭되지 않도록 빨리 움직였다.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디든 앉고 싶었다. 저 앞에 아무도 앉지 않은 벤치가 하나 있었다. 서둘러 그쪽으로 가서 앉았다.

“으음.”

벤치에 닿은, 반바지 아래 맨살이 텔 것 같았다. 눈이 부셨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다. 우산으로 해를 가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H와 S가 단톡방에 올린 상투적인 이모티콘이 화면에 가득했다.

누나, 지금 어디?

정우 카톡이었다.

병원에서 막 나온

엄마한테 말 안 했지?

어, 엄만 오자마자 타이레놀이랑

쌍화탕 먹고 잠들었어

몸살 났나?

그런 것 같음

누난 괜찮아?

그럭저럭

대학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에 가던 날이 떠올랐다. 밤새워 일한 엄마가 지하철에서 조는 바람에 나는 쓰러질 수가 없었다.

‘오늘도 엄마가 먼저 뺏는구나.’

조금 쓸쓸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이제 열여덟 살이다. 대학 병원 암 병동에는 나보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암과 싸우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큰 어려움을 가져와 위안으로 삼는 게 미안하지만, 오늘 하루는 그런 위안이 있어야 버틸 것 같았다.

너도 맛있는 거 먹느라고 그동안 고생했다.

얼른 라면 먹어

응

정우랑 엄마도 2주 동안 요오드 제한식을 했다.

- 혼자 하면 외로우니 셋이 다 하자. 함께 비를 맞는 게 친구다.

엄마가 비장하게 말해 버렸기 때문이다. 정우는 거의 매일 밤 라면을 먹는 애다. 라면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했

다. 엄마는 요오드 제한식을 잘 먹지 못했다. 입술이 부르텔다. 상 위에 오른 한우 스테이크는 나만 먹을 수 있었다. 정우는 달걀 프라이를 먹으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 한우 스테이크는 그레이브스 씨 거다. 잘 먹여야 누나 몸에서 순하게 떠난다.

- 그냥 같이 먹어. 짜증 나.

나는 두 사람을 여러 번 말렸다. 제발 요오드 제한식을 먹지 말라고 부탁했다.

- 아니야. 이거라도 같이 해야지.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정우도 한우 스테이크에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게 싫었다. 별 위로도 되지 않았다. 엄마는 내게 닥친 큰비를 헛짚은 것 같았다. 나는 피폭 후 48시간이 가장 두려웠다. 모두와 2미터를 벌려야 하는 그 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막막하고 외로울 것 같았다.

H와 S가 따라온다고 해도 피폭 후 2시간이 지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헤어질 작정이었다. 오래 함께 있었다가 나중에라도 둘 중 누군가에게 갑상선 기능 이상이 오면, 웬지 내 잘못된 것 같아 괴로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정음. 피폭 잘 끝났어?

괜찮아?

누군가의 문자가 도착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 아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늘 내 상황을 물을 사람이 달리 떠오르지 않았다. 그새 아빠 번호가 바뀌었거나, 요금을 내지 못해 다른 사람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누구세요?

내가 답했다.

응, 나 인애

‘인애?’

인애가 누굴까. 내가 아는 인애는 짝 E뿐이다.

김인애?

응, 참 내 번호 모르지

할머니랑 같이 쓰는 거라

어... 고마워, 기억해 줘서, 잘 끝났어

보충 시간이잖아 샘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문자 그만해

나 학교 안 갔어

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응. 고개 들고 왼쪽을 봐

나는 고개를 들고 오솔길 왼쪽을 봤다.

“어!”

김인애였다. 김인애가 저만큼 있었다. 10미터쯤 떨어진 길에 서서, 선글라스를 낀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김인애와 마주 본 채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김인애, 너 왜 여기 있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길 왔다고?”

“어, 너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어이가 없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냥 우연히 짝이 되어 나란히 앉은 애들이었다.

“언제부터 나 따라온 거야?”

“아까 병원 회전문 앞에서부터.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따라왔어.”

“믿어지지 않아.”

“믿어. 나 네 짝 김인애야. 귀신 아니라 진짜 인애.”

김인애가 자기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나는 가만히 김인애를 보았다. 김인애도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눈을 마주치는 게 불편했다. 다 들켜 버렸다.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걸.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부끄러웠다.

“너 몇 시에 피폭?”

“9시 15분쯤.”

“지금 그 자리 불안해. 땡벌에서 어서 벗어나면 좋겠어.”

“왜?”

“너는 앞으로 한 시간 17분 동안 어떤 음식물도 섭취할 수가 없잖아. 탈수를 조심해야 해. 쓰러지면 내가 곤란해. 너를 구조하러 가야 하나,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해야 되잖아. 어쩌면 너를 구조하러 가서 내가 피폭될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 주길 바란다.”

눈앞에 두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김인애가 나를 보호하려고 거기 서 있다는 게.

“진짜로 나 때문에 온 거야?”

“그래, 너 혼자 길에서 쓰러질까 봐 왔다니까. 전에 우리 할머니 병원에서 금식하고 피 검사하고 혼자 집에 오다가 쓰러진 적 있거든 이렇게 더운 날. 그때 식겁해서 굶은 사람 혼자 병원 가는 거 무서워. 답임한테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빠진다고 했어. 어서 직사광선이 쏘아지는 그 자리를 벗어나 주길 바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었다. 김인애는 스무 걸음쯤 뒤에서 나를 따라왔다. 나는 100미터쯤 움직이다가 오솔길 안쪽, 조그만 뜰로 갔다. 가운데 정자가 있는 둥근 뜰이었다. 뜰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작년 이맘때는 H, S와 이 둥근 뜰에 왔다. H는 이 뜰에도 침을 뱉었다.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여기서 데이트를



할 거라고,

나는 정자에 걸터앉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내게서 5미터쯤 떨어진 뜰 입구에 김인애가 서 있었다. 이 뜰 안에 우리 둘뿐이었다.

“거기 좋아. 여기서 너랑 10미터를 벌릴 수 없다. 그래도 괜찮아. 2미터보단 한참 밖이니까.”

전화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가만히 김인애를 보았다. 김인애가 선 곳은 땡볕 아래였다. 김인애가 가방을 열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비닐로 싸, 묵직해 보이는 것이었다. 비닐 안에는 수건으로 둘둘 만 게 들어 있었다. 수건을 벗기니 생수 두 병이 나왔다. 냉동실에 통째로 넣어서 얼린 것이었다.

“이 수건 완전 시원하다. 너 주면 좋을 텐데.”

김인애는 몇 초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았다.

“생수는 앞으로 한 시간 11분 뒤에 너에게 제공할 예정이야.”

김인애는 가방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또 꺼냈다. 플라스틱 통이었다.

“이건 수박, 우리 집 과일 잘 못 사 먹거든. 근데 이모할머니가 며칠 전에 사 왔어. 반찬 냄새 안 나는 통은 못 찾았어. 수박에서 김치 냄새가 날 거야. 이해해 줘. 나 조손 가정.”

김인애는 우리 단지에 산다. 모두 13평 복도식 아파트로 이루어진 임대 아파트 단지다. 좁은 싱크대에서, 아마도 하나뿐일 도마에 수박을 올려놓고 하나뿐일 식칼로 자르는 모습을 떠올렸다. 우리 집도 과일을 잘 못 사 먹는다. 요오드 제한식을 하는 나 때문에 엄마가 큰맘 먹고 산 수박에서도 마늘 냄새가 났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받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정음아, 어지러워?”

“아니.”

“그럼 고개를 들어 줘. 너를 부축하려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나갈 뻔했어.”

인애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주위에 누가 있나 살폈다. 정자 주변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정자 안쪽 구석, 인애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가방을 벗고 정자 난간에 몸을 기댔다.

“그 선글라스 네 거야?”

“아니, 우리 할머니 거. 혹시 너 구조하다가 내 눈이 피폭될까 봐.”

인애 선글라스는 할머니들이 주로 쓰는, 양쪽에 나비 장식이 달린 것이었다.

“빌려줄까? 원하면 여기에 놓고 잠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올 수도 있어. 그사이에 여기로 와서 네가 쓰면 오히려 더 가까운 방어막이 되겠지.”

인애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됐거든, 저쪽 나무 아래 그늘로 가. 거기 땡볕이야.”

나비 선글라스보다는 봉어눈이 나왔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처음 웃는 것 같았다.



[뒷부분 줄거리]

인애의 도움으로 힘을 낸 정음은 48시간 가출 장소인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 정음은 버스를 타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폭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할머니 댁에 도착한다. 이혼한 아빠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덕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가출 장소였다. 무심하다고만 여겼던 아빠가 자신을 위해 열 가지도 넘는 요오드 제한식 반찬을 준비해 놓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자신의 돌침대에 방사능을 마구 묻혀도 된다고 편히 쉬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인애에게서 다음엔 같이 컵라면을 먹자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정음은 조금 행복해졌다.

- 2미터 그리고 48시간(유은실), pp. 64-99.

● 참고문헌

- 도서

- 김혜진 외(2019), 땀 흘리는 소설, 창비교육.
- 문유석(2015),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
- 유은실(2018), 2미터 그리고 48시간, 낮은산.
- 최영희(2014), 첫키스는 엘프와, 푸른책들.

- 기사

- 구미현(2020.12.12.), "혹시 나 때문에?"...울산 학생 확진자들 심리적 고통 호소, 뉴시스.
- 김지한(2020.12.15.), "기억에 남을 모습"...마스크 쓴 '우승자' 김아림 향한 외신들의 찬사, 중앙일보.
- 김태훈(2015.08.22), 민폐 과다와 배려 결핍, 혐오를 낳다, 경향신문.
- 명희진(2020.08.25.), 확진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왕따'에 운다, 서울신문.
- 박광연(2016.09.18), '팩트폭력'. 팩트인가, 폭력인가, 경향신문.
- 신성식(2020.07.15.), "넌 확진자" 얼굴 알려질까 외식도 못해...35세 완치자의 고통, 중앙일보.
- 윤한슬(2020.10.27), "택배기사님, 감사해요!" 잇단 과로사가 불러온 따뜻한 유행, 한국일보.
- 정지순(2020.05.22.),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독거어르신 지킴이 봉사 이귀임 씨, 시니어매일.

- 이미지

- 2미터 그리고 48시간 책표지, 알라딘 홈페이지 미리보기 페이지.
- 자기주도방역(2020.09.13.), 우정사업본부 페이스북 페이지.

- 영상

- 국민리포트(2018.03.20.), '인터넷 혐오표현' 범람...청소년 악영향, KTV국민방송.